



신라 고분 부장 금속용기의 등장과 전개

The Appearance and Development of Metal Container in Silla Ancient Tombs

방민희

계림문화재단연구원 연구원

- I. 머리말
- II. 금속용기 부장 고분
- III. 금속용기 기종조합
- IV. 금속용기의 전개와 의미
- V. 맺음말

국문 요약

삼국시대 고분 부장품에서 금속용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 금속용기의 부장이 두드러진 것은 경주의 적석목곽분이며, 신라양식 토기가 부장된 대구, 경산, 창녕, 양산, 포항의 고분에서도 금속용기가 부장되었다. 따라서 금속용기의 부장은 신라 고분 특징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금속용기의 부장 고분에 대한 개별 유구를 집성한 후, 부장된 금속용기의 기종과 수량에 대하여 파악하였다. 금속용기는 재질별, 기종별 조합에 대하여 살펴본 후 금속용기 조합이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신라 고분 부장 금속용기의 기종조합을 통해 고분의 위계에 대하여 파악하고, 지역별 전개 양상의 차별성에 주목하여 금속용기에 대한 종합적 고찰을 통해 금속용기 부장이 갖는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경주를 비롯한 경주 외 지역의 고분에서 출토된 금속용기를 취합하여 금속용기의 전개과정과 금속용기 부장의 단계를 구분하고 신라 고분에 부장된 금속용기의 시공간적 양상을 통해 그것이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설명했다.

주제어 : 신라 고분, 경주, 금속용기, 위계, 등장, 전개

I . 머리말

신라 고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적석목곽분으로 구조적인 측면과 함께 다종, 다양한 많은 부장품으로 고분 연구의 주된 대상이 되었다. 적석목곽분의 계통이나 구조, 축조방식 등 여러 관점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부장된 토기는 적석목곽분 편년의 기준이 되는 한편 신라양식 토기를 통해 신라의 권역을 추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적석목곽분에 부장된 여러 유물 가운데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였던 유물이 바로 금속용기이다.

적석목곽분에 부장된 금속용기는 금, 은, 청동, 금동, 철 등 다양한 재질로 만들어졌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앞선 시기의 목곽묘에서 보이지 않던 금이나 은, 금동을 이용한 다양한 금속용기 기종의 부장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다양한 재질의 다종의 금속용기 부장은 새로운 문물의 확산을 포함한 신라의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금속용기는 경주분지의 대형분에 주로 부장되었고, 경주 이외 지역의 고총고분에서 출토되어서 당시 사회의 신분과 위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대적 상황을 시사한다.

경주 사라리 130호분 등 사로국 단계의 목곽묘에는 금속용기로서 철술이 부장되기 시작한다. 하지만, 금, 은, 금동, 청동, 철 등 다양한 재질의 여러 기종의 금속용기 부장은 적석목곽분의 등장과 함께한다고 할 수 있다. 적석목곽분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지만, 적석목곽분의 초기형태로 보고 있는 사방적석식목곽묘(이희준 2017) 또는 석재총전식 목곽묘(최병현 2021)로 불리는 경주 월성로 가-13호분에서 금속용기가 보이기 시작하여 주로 대형분에 해당하는 적석목곽분에서 확인된다.

신라 고분에 부장된 금속용기 중에는 신라양식 토기와 같은 기종인 고배, 장경호가 있으며, 호우총의 청동호우, 서봉총의 은합, 금관총의 청동유개사이장경호와 같이, 고구려에서 온 기종도 있다. 또한, 청동제 정, 초두, 초호, 울두 등 중국 중원 왕조의 의기뿐만 아니라, 서역과의 관련성으로 보여주는 각배나 은잔 등 여러 종류가 있다. 이처럼 신라 고분의 금속용기 중에서는 의례를 상징할 수 있는 기종도 있지만, 철제 술이나 시루 등은 신라 실생활에서 사용된 기종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보면 신라 고분에 부장된 금속용기는 개인 식음기, 조리용, 의례용, 저장용 등 용도와 그 출자가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금속용기는 경주지역의 적석목곽분 외에도 경산, 대구, 창녕, 양산 등 경주

이외 지역의 고총고분에서도 출토되며, 금속용기가 부장된 고분에서는 신라양식 토기와 신라식 착장용 장신구가 확인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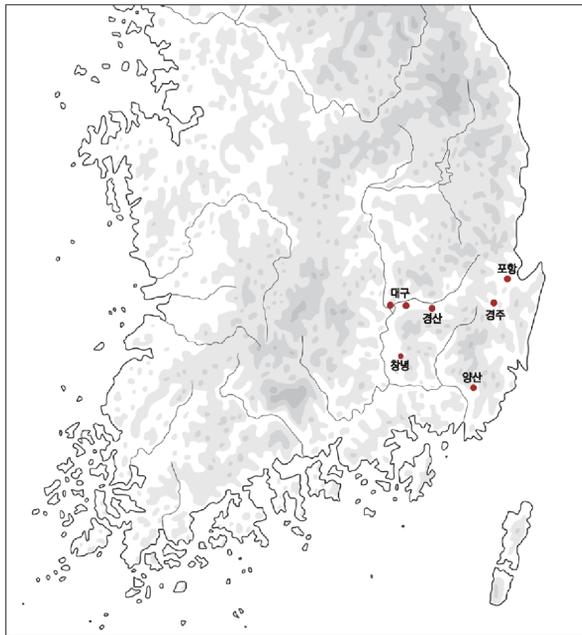
또한 금속용기는 경주분지의 대형분에 주로 부장되었고, 경주 이외 지역의 고총고분에서 출토되어서 당시 사회의 신분과 위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대적 상황을 시사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주를 비롯하여 신라의 영역에 해당하는 경산, 대구, 창녕, 양산, 포항의 신라 고분을 함께 검토해 보고자 한다. 물론, 금속용기에 자료가 경주에 편중되었고, 금속용기의 출토상황이나 부장 양상을 발굴 보고서에서 반영되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아서 연구의 한계가 되었지만, 현재까지 확보된 금속용기 자료를 취합하여 금속용기 부장에 투영된 의미를 살피고자 한다. 특히 금속용기가 부장된 고분이 신라 왕도인 경주 분지에 집중되어 있고, 경주 이외 지역의 경우 고총고분에서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신라의 중앙,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상호작용을 통한 지방 간의 위계 파악에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Ⅱ. 금속용기 부장 고분

금속용기가 부장된 고분은 경주를 중심으로 한 적석목곽분이 주를 이루지만, 경주 이외의 지역인 경산, 대구, 창녕, 양산, 포항지역에서도 금속용기 부장이 확인된다. 특히 경주 외 지역은 신라양식 토기와 신라식의 착장용 장신구가 함께 부장됨에 따라 신라 고분으로 알려진 바 있다. 금속용기가 출토된 경주의 적석목곽분과 경주 외 지역의 신라 고분을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고분에 부장된 금속용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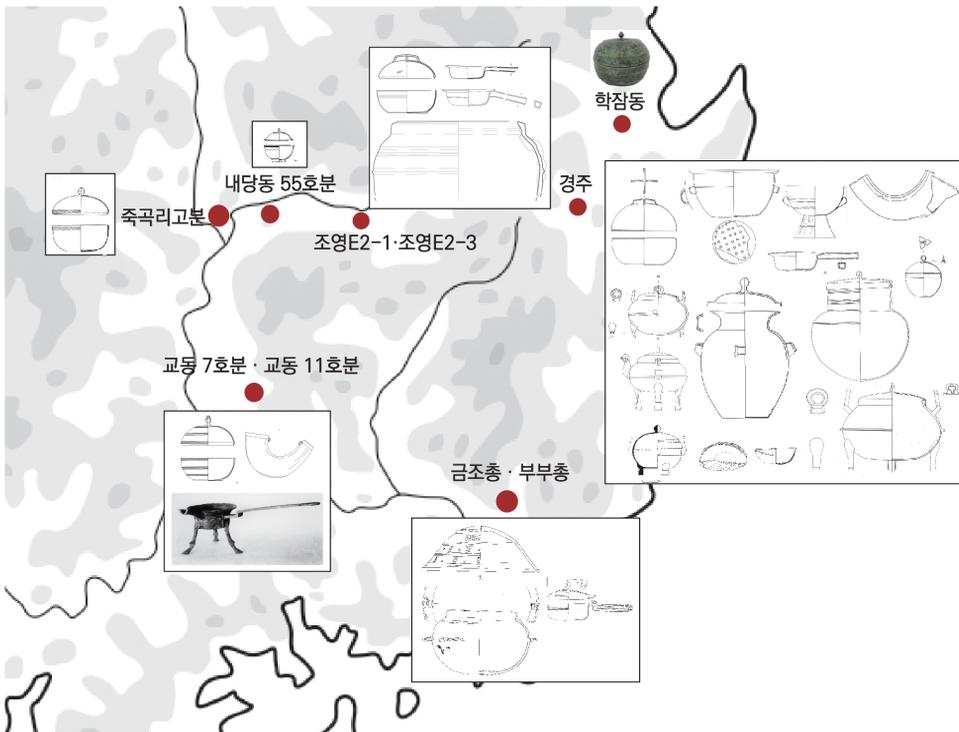
[도면 1] 금속용기 부장 고분의 위치(●)

대한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적석목곽분에서 금속용기가 집중적으로 확인되는 시기인 4세기 후엽경 신라양식 토기의 출현기부터 통일기 양식 토기가 나타나기 전까지인 6세기 초반으로 한다.

신라양식 토기는 높은 대각이 있는 고배와 대부장경호를 주 기종으로 하는 토기

[표 1] 금속용기 부장 고분

지역	유적명
경주	월성로 가-13호분, 황오리 14호분 1곽, 황오리 1호분, 황오리 16호분, 황오리 33호분, 황오리남곽(98-3), 황오리 5호분, 황오리 34호분, 황오리 37호분 남곽, 황오리 54호분, 황오리 4호분, 황남대총 남분, 황남대총 북분, 계림로 32호분, 인왕동 149호분, 인왕동 19호분 C곽, 금관총, 서봉총, 쪽샘지구 B1호분, 쪽샘지구 B3호분, 천마총, 금령총, 식리총 노서리 138호분, 노동리 4호분, 미추왕릉 7지구 7호묘, 황남동 120호분, 은령총, 호우총, 계림로 14호분, 보문리 고분
경산	조영동 EⅡ-1호, 조영동 EⅡ-3호
대구	죽곡리 고분, 내당동 55호분
양산	금조총, 부부총
창녕	교동 7호분, 11호분
포항	포항 학잠동 석실분



[도면 2] 금속용기 부장 고분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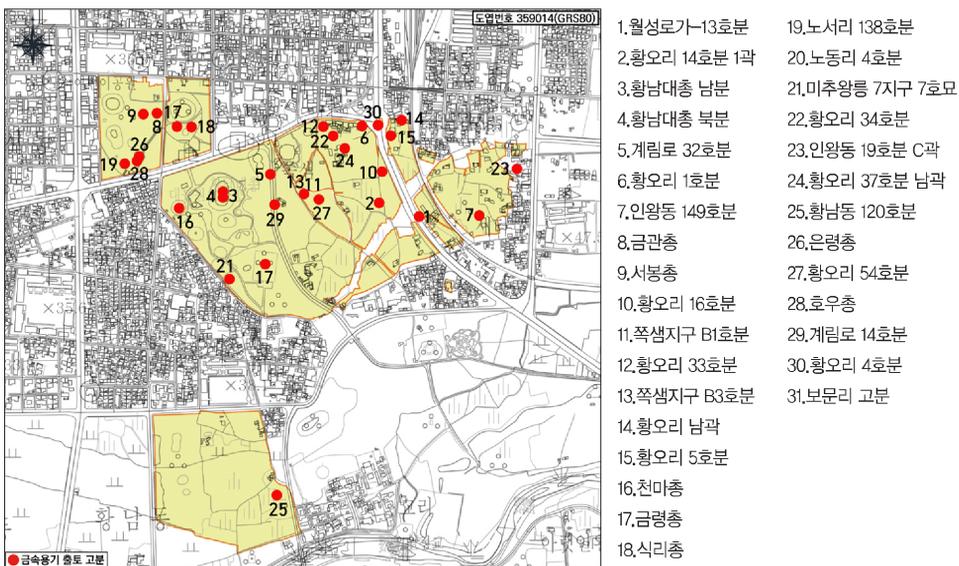
양식으로, 적석목곽분이 조영되던 시기에 만들어진 토기를 말하며, 고배와 대부장경호가 대표적이다. 이후 6세기 중엽이 되면 대각이 낮아진 고배들이 제작되는데, 특히 대각이 마치 굽과 같은 형태로 낮아진 단각고배가 출현한다.

공간적 범위는 금속용기가 출토되는 신라의 중심지인 경주와 경산, 대구, 창녕, 양산, 포항 등 경주 이외 지역의 고분 부장 금속용기도 함께 검토할 것이다. 경주 이외 지역의 경우 신라양식 토기가 부장되고 신라식의 착장용 장신구가 부장된 고총고분이다. 경주에서 금속용기가 확인되는 적석목곽분의 수는 대략 31건이다. 그 외 적석목곽분에 부장되진 않았지만, 경산, 대구, 창녕, 양산, 포항의 신라 고분에서 확인된 수는 총 9건이다.

1. 경주

금속용기가 확인되는 신라고분은 경주에서 집중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른 지역과는 달리 경주지역에서는 모두 적석목곽분에서 금속용기 부장이 확인된다.

경주지역에서는 많은 고분군이 분포하고 있지만, 이 중에 노동동, 노서동, 황남동, 황오동, 교동, 인왕동에 분포하고 있는 대릉원지구를 신라 마립간기의 중심고분군으로 볼 수 있으며, 대릉원지구는 경주지역의 중심고분군으로서 신라의 정치체 발생과



[도면 3] 경주 금속용기 출토 신라 고분의 위치(●)(S=25,000)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특히, 보문리 고분에 부장된 청동합 1점을 제외하면 경주지역의 금속용기는 모두 경주 분지 대릉원 일원에서 출토되었으며, 대릉원 중심의 대형분에서 금속용기의 기종과 수량이 다양하게 부장된 경향이 있다.

2. 경주 외 지역

경주 외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신라고분은 경주를 중심으로 하여 신라권 지역으로 확산된 것으로 알려져있다. 각 지역은 고층을 축조하면서 지역적 특성을 가진 묘제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조사된 신라의 고층군과 그와 동등한 매장규모와 위계를 가진 대형 고분군은 30여 곳으로 확인되는데, 각 지역에서는 자신들만의 묘제를 채택하여 발전시키고 있는 모습은 각 지역별 독립된 집단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묘제가 지역성을 반영하고 있으나, 고층에서 출토되는 토기와 금공품은 전형적인 신라식 위세품이 부장되었다(김용성 2015).

경주 이외의 지역에서 금속용기가 부장되는 지역은 경산, 대구, 창녕, 양산, 포항 지역으로 이들 지역에서는 적석목곽분이 아닌 수혈식석곽, 횡구식석곽 등의 다양한 묘제에서 금속용기의 부장이 확인된다.

[표 2] 경주 외 지역 금속용기 부장 고분

경주 외 지역 금속용기 부장 고분		
경산	경산 조영동 EⅡ-1호분	횡혈식석곽
	경산 조영동 EⅡ-3호분	암광목곽묘
대구	대구 내당동 55호분	횡구식석곽
	대구 죽곡리 고분	수혈식석곽
창녕	창녕 교동 7호분	횡구식석곽
	창녕 교동 11호분	
양산	양산 금조총	횡구식석곽
	양산 부부총	
포항	포항 학잠동	횡혈식석실

Ⅲ. 금속용기 기종조합

금속용기는 경주분지 중심의 적석목곽분과 경산, 대구, 창녕, 양산, 포항 등지의 수혈식석곽묘, 횡구식석곽묘 등에서 출토되었다. 금속용기의 출토맥락에 대하여 살펴보면, 금속용기는 피장자의 두부 위쪽 부장칸에 부장되는 양상이 일반적으로 관찰되지만 피장자의 발치나 부곽에서 확인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금속용기는 피장자의 두부 위쪽 부장칸에서 확인되고 있어 부장에서 일정한 정형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금속용기는 재질별로 여러 기종과 동일 기종의 복수부장 등이 확인되어서 금속용기의 조합 양상에서의 질적, 양적 차이를 보인다. 때문에, 재질과 기종별 부장 조합 유형에는 피장자의 위계가 반영되었을 것이다.

금속용기 재질별 기종의 종류에 대하여 살펴보면, 금기는 고배와 완, 은기는 고배, 완, 파수부용기, 합, 금동은 고배, 완, 파수부용기, 합, 각배가 있는데, 이들은 모두 식음기에 해당하는 기종이다. 청동용기는 정, 합, 초두, 초호, 울두, 호, 시루, 반, 호자, 각배가 있으며, 주로 중국 중원 왕조와 관련된 의례용기이다. 철제용기는 정, 술, 복이 있다.

이에 금, 은, 금동으로 제작된 식음기와 청동정, 청동초두, 청동초호, 울두, 호, 각배, 반, 합, 그리고 철술 등의 조합양상을 다음과 같이 7개의 조합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가유형은 금, 은, 금동, 청동, 철로 제작된 모든 금속용기가 확인되는 유형으로, 황남대총 남분, 황남대총 북분, 금관총이 이에 해당되며, 청동정의 부장 여부에 따라서 다시 두 가지 유형으로 세분된다. ①유형은 청동정이 부장되지만 ②유형에서는 청동정이 부장되지 않는다. 가유형은 신라 고분에서 확인되는 금속용기 기종 전부를 포함하고 있어, 질적, 양적으로 우위를 보인다. 황남대총에서는 금·은·금동으로 제작된 금속용기의 기종이 다양하게 부장되는 한편, 청동정과 철술이 부장된다. 가유형의 고분에서는 금, 은, 금동용기 외에도 중국식 의례용기로 파악되는 청동반, 청동초호, 청동초두가 함께 부장되었다.

나유형은 금, 은, 청동, 철제 기종의 조합이며, 금동기는 확인되지 않으며, 청동정도 부장되지 않았다. 현재는 서봉총 한 기이며, 가유형에 비해서 금속용기 기종의 종류가 대별된다.

다유형은 금기 없이 은, 금동, 청동, 철제용기가 부장되며, 천마총이 해당한다. 의례기인 청동정, 청동초호, 청동울두가 함께 부장되며, 금동용기 가운데 합, 고배, 완의 수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라유형은 금동, 청동, 철제용기의 조합으로 금령총이 이에 해당한다. 금동합과 청동합, 철술이 부장되었다. 금기나 은기가 없고, 청동기의 기종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점이 나, 다유형과의 차이이다.

마유형은 청동제와 철제용기의 조합으로 청동합과 철술이 부장된다. 청동용기의 일부 기종이 선택적으로 부장되기도 하는데, 주로 황오리 일대의 고분과 경주 이외 지역의 고총고분에서 확인된다. 경주 이외 지역에서는 창녕 교동 7호분과 11호분, 경산 조영 EⅡ-1호분, EⅡ-3호분이 이에 해당된다. 창녕과 경산지역이 다른 지방보다 조합양상에서 우위에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바유형은 청동용기가 단수부장되며, 주된 기종은 청동합과 울두이다. 청동합만 부장되는 경우는 황오리 34호분, 계림로 14호분, 대구 내당동 55호분, 대구 달성 죽곡리 고분으로 모두 각 한 점이 부장되었다. 청동울두는 인왕동 19호분 C곽, 양산 금조총에서 1점씩 부장되었다.

사유형은 철제용기만 부장되는 경우로 철술, 철정, 철호 등이 부장되며, 현재는 경주와 양산에서만 확인된다. 경주에서는 쪽샘지구 고분을 비롯하여 황오동, 노서동, 계림로 고분, 그리고 양산 부부총이 해당한다. 기종조합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위계를 보여주는 유형이다.

[표 3] 금속용기 재질 조합

유형	재질별 조합	부장고분
가	금+은+금동+청동+철	황남대총 남분, 황남대총 북분, 금관총
나	금+은+청동+철	서봉총
다	은+금동+청동+철	천마총
라	금동+청동+철	금령총
마	청동+철	황오리 4호분, 황오리 16호분, 황오리 남곽, 황오리 37호분 남곽, 식리총, 노서리 138호분, 황남동 120-2호분, 은령총, 호우총, 보문리 고분, 경산 조영 EⅡ-3호분, 창녕 교동 7호분
바	청동	황오동 34호분, 인왕동 19호분 C곽, 계림로 14호분, 대구 내당동 55호분, 경산 조영 EⅡ-1호분, 창녕 교동 11호분, 대구 달성 죽곡리 고분, 양산 금조총
사	철	계림로 32호분, 황오동 1호분, 황오리 33호분, 황오리 5호분, 인왕동 149호분, 황오리 54호분, 쪽샘지구 B1호분, 쪽샘지구 B3호분, 노동리 4호분, 미추왕릉 7지구 7호묘, 황남동 120-1호분, 양산 부부총

[표 4] 경주 적석목곽분 부장 금속용기의 공반 양상

유적	철제				청동								금			금동				은								
	술	정	호	완	복	시루	정	초두	위두	합	호	반	초호	호자	각배	완	합	고배	합	고배	완	파수부용기	각배	합	파수부용기	고배	완	
월성로 가-13호분																2												2
황오리 14호분 1곽	1		1																									
황남대총 남분	4	3				1	3	1	2	11	2	1				5			1					11	3		5	
황남대총 북분	3					3		3		1		1			4		8	7	5					9		8	5	
계림로 32호분	1																											
황오동 1호분(남)	1																											
인왕동 149호분	1																											
금관총	4			1						1		1			6			15	1	7	1	1	6				5	
황오리 16호분 8곽	1								1																			
황오리 16호분 2곽	1							1	1																			
황오리 16호분 4곽	1								1	1																		
쪽샘지구 B1호분	2																											
황오동 33호분(동)	2		1																									
쪽샘지구 B3호분	1																											
황오리 남곽	1									1																		
황오리 5호분	1																											
천마총	4					1		1					1					24	5	6				5				
금령총	2									6								6										
서릉총	2											1			2									1				
식리총	1	1						2		2																		
노서리 138호분	1	1					1			1																		
황오동 33호분(서)	1		1																									
미추왕릉 7지구 7호		2																										
황오리 37호분 남곽	1			1						1																		
황오리 16호분 1곽	2								1	1	1																	
노동리 4호분	2																											
황오동 34호분 1곽											1																	
황오동 34호분 2곽												1																
황오동 34호분 3곽													1															
인왕동 19호 c곽											1																	
황남동 120-1호분	1																											
황남동 120-2호분	1									1																		
은령총	1										1																	
황오리 54호분	1																											
호우총	2										1			1														
계림로 14호분											1																	
황오리 4호분	2						1		1	1																		
보문리고분	2										1																	

[표 5] 경주 외 지역 고분 부장 금속용기의 공반 양상

유적	철제				청동										
	술	정	호	완	복	시루	정	초두	위두	합	호	반	초호	호자	각배
대구 내당동 55호분										1					
경산 조영 EⅡ-1호									1	1					
창녕 교동 11호분									1						
대구 달성 죽곡리										1					
경산 조영 EⅡ-3호		1								1					
창녕 교동 7호분		1								1	1				1
양산 금조총										1					
양산 부부총		1													
포항 확장동										1					

[표 6] 재질별 금속용기 기종 조합

유형	세부 유형	금속 용기								부장고분
		금기	은기	금동기	청동정	청동조두·조호	청동합	청동기타용기	철술·철정	
가	①	●	●	●	●	●	●	●	●	황남대총 남분, 황남대총 북분
	②	●	●	●		●	●	●	●	금관총
나	·	●	●			●				서봉총
다	·		●	●	●	●	●	●	●	천마총
라	·			●			●		●	금령총
마	①				●		●	●	●	황오리 4호분
	②				●		●		●	노서리 138호분
	③					●	●	●	●	황오리 16호분 1곽
	④					●	●		●	식리총
	⑤					●	●			창녕 교동 11호분
	⑥						●	●	●	호우총, 황오리 16호분 4곽, 창녕 교동 7호분
	⑦						●	●		경산 조영 EⅡ-1호분
	⑧						●		●	황오리 남곽, 은령총, 보문리 고분, 황오리 남곽, 보문리 고분
	⑨							●	●	황오리 16호분 8곽, 황오리 16호분 2곽, 황오리 37호분 남곽, 황남동 120-2호분, 경산 조영 EⅡ-3호분
바	①						●			황오리 34호분, 계림로 14호분, 대구 내당동 55호분, 대구 달성 죽곡리 고분,
	②							●		인왕동 19호분 C곽, 양산금조총
사	·							●		황오리 14호분 1곽, 계림로 32호분, 황오리 1호분, 인왕동 149호분, 쪽샘지구 B1호분, 쪽샘지구 B3호분, 황오리 5호분, 황오리 33호분, 미추왕릉 7지구 7호묘, 노동리 4호분, 황남동 120-1호분, 황오리 54호분, 양산 부부총

[표 6]을 통해 금속용기의 재질과 기종에 따른 금속용기의 조합 양상은 결국 금속 용기 부장의 위계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보여준다. 가령, 가장 이른 고총고 분이 황남대총의 남분과 북분에서는 모든 기종이 확인되는 반면, 늦은 시기로 비정 되는 식리총이나 호우총에서는 금, 은, 금동용기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금속 용기 기종조합 유형에는 시간의 흐름도 반영되어 있지만, 무덤의 위계도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경주 적석목곽분 피장자에 대한 성격은 마립간기에 해당하는 왕과 왕족, 귀족의 무덤이라고 알려진 바 있어서 이를 금속용기의 기종조합을 통해 볼 때 [표 7]과 같이 정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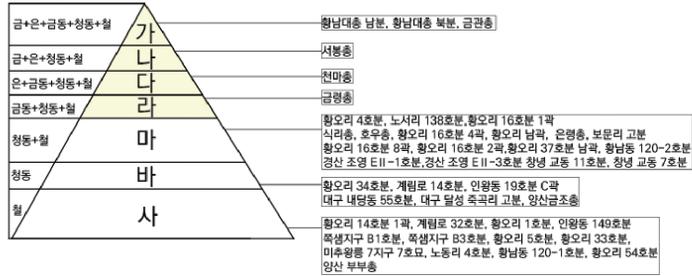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금속용기의 기종과 재질의 조합을 통해 7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은 각 위계를 시사한다. 경주 적석목곽분에서 보이는 금속용기 조합에 따른 위계를 경주 이외 지역과 비교해 보면, 경주 이외 지역은 마, 바, 사유형에서만 관찰된다. 가유형~라유형은 모두 경주 적석목곽분에 부장되며 최상위 혹은 상위의 대형분에 해당된다. 경주 이외 지역은 경산과 창녕의 경우 마유형에, 대구는 바유형,

양산은 사유형에 해당되어, 경주 이외 지역 간에서 위계 차이가 관찰된다.

경주지역의 경우 가~사유형 모두 확인되며, 경주 외 지

역의 경우에서 마~사의 유형에서 확인된다. 가~라유형의 경우 왕릉급 무덤으로 상위의 고분으로 볼 수 있는 황남대총과 금관총, 서봉총, 천마총, 금령총이 있다. 지금까지 연구된 결과로는 경주 대릉원에 분포하는 황남동, 황오동, 교동, 인왕동, 노서동, 노동동 고분군에서 마립간기 왕릉을 비정하고 있어(김대환 2017), 마립간기의 왕릉으로 비정되고 있는 가~라유형의 고분을 주목할 수 있다.

[표 7] 기증조합에 따른 고분의 위계



IV. 금속용기의 전개와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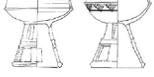
1. 금속용기의 전개

1) 시간판단기준

앞서 살핀 금속용기의 조합양상을 통해 고분의 위계와 시간에 따른 변화상이 파악된다. 뿐만 아니라 경주를 중심으로 하여 경주 이외 지역으로 금속용기 부장이 확산되어지는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어, 금속용기 부장의 정치·사회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시간의 변화를 추적하고 그에 따른 정치, 사회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렇지만 고분에 부장된 금속용기는 시간에 따른 형태 변화가 두드러지지 않고 특히 의례기의 경우 전통을 고수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형태 변화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아 그 변화를 추적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고분에 부장된 금속용기가 형태적 분석을 하기에는 양적으로 충분하지는 않아서 금속용기의 기종별 형식 편년을 설정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금속용기의 시간의 흐름은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신라 토기의 편년 연

최병현 안(2021)		분기	토기	고분
1Aa	4C 중엽			
1Ab				
1Ba	4C 후엽	I		월성로 가-13호분 황오리 14호분 1곽
1Bb				
1Bc				
2a	4C 말~5C 초	II		황남대총 남분 황남대총 북분
2b	5C 전엽			
3a	5C 중엽	III		계림로 32호분, 황오리 1호분 금관총, 황오리 16호분 4곽 황오리 남곽, 황오리 16호분 2곽 쪽샘지구 B3호분, B1호분
3b	5C 후엽			
4a	5C 말~6C 초	IV		천마총, 금관총, 서봉총, 식리총, 노서리 138호분, 미추왕릉 7지구 7호묘 황오리 37호분, 황오리 16호분 1곽 황오리 34호분, 은령총, 대구내당동 55호분 경산 조영 EⅡ-1호분, 창녕 교동 11호분 대구 달성 죽곡리 고분 경산 조영 EⅡ-3호분, 창녕 교동 7호분 호우총, 계림로 14호분, 황오리 4호분 보문리 고분, 양산 금조총, 양산 부부총
4b	6C 전엽			

[도면 4] 금속용기의 분기 구분표

구를 참고하고자 한다. 신라 토기의 편년안에 대해서는 연구 간에 근 1세기에 가까운 입장 차이가 있지만, 고분의 상대서열에서는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되고 있어 고분의 상대서열과 최병현(2021)의 신라전기양식토기 편년안을 참고하고자 한다. 따라서 상대서열안에 따라 금속용기가 부장된 고분의 선후관계를 정리하여 각 분기별로 고분에 부장된 금속용기의 특징과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금속용기의 전개

I 기는 4세기 후엽으로 금속용기가 적석목곽분에 처음으로 부장된 시기이다. 이 시기 고배의 특징은 4단 나팔각 고배가 3단각 고배로 축소되고 대각의 투창은 상하 교차투창이 출현되며, 2단각 고배가 발생하여 3단각 고배와 공존한다. 이 단계에 해당되는 고분이 경주 월성로가-13호분과 황오리 14-1호분이다. 월성로 가-13호분에서 금제완, 은제완이 확인되었고, 황오리 14-1호분 1곽에서는 철술과 철호가 출토되었다. 신라 적석목곽분에서 확인되는 금속용기가 조합을 이루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금속용기의 본격적으로 부장되는 된 시기로 보기는 어렵다.

II 기는 4세기 말에서 5세기 전엽에 해당되는 시기로 금속용기가 적석목곽분에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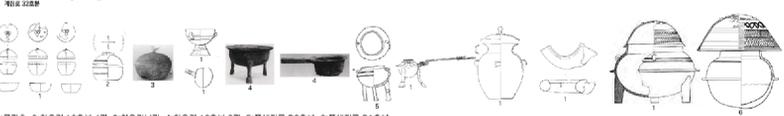
격적으로 부장되는 시기로 최상위 무덤인 황남대총에서 두드러진다. 이 시기는 고배는 대각에 상하 교차투창이 뚫린 고배가 2단각 고배로 정형화되어 신라양식이 완성된 시기이며, 금속용기 기종 조합에서 신라 고분에 부장된 금속용기 각 기종이 모두 부장되었다. 또한 신라식 금속용기가 출현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금속용기는 금, 은, 금동, 청동, 철 등 모든 재질이 확인되며, 종류로 개인 식음기에서부터 조리용, 저장용, 의례용 등 모든 기종이 망라되며 그중에는 복수부장되는 경우도 확인된다. 특히 황남대총 남분에 부장된 금속용기는 총 110점으로 전 시기를 포함하여 가장 많은 금속용기가 부장되었다.

이 시기에 부장된 금속용기 가운데 황남대총 남분과 북분의 청동정은 고구려 칠성산 96호분, 우산하 68호분 청동정과 기형적으로 유사하여, 고구려에서 수입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황남대총 남분과 북분에서 청동정이 각각 3점씩 복수부장되어서 매장차례에 신분 질서가 반영되었음을 보여준다. 합도 칠성산 96호분의 십자형뉴동합과 형태가 같은 은합이 황남대총 남분에서 확인되어 금속용기 부장에서의 고구려 영향이 관찰된다. 이외에도 황남대총 북분의 귀갑문이 타출된 은잔은 서역에서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신라식 특징을 가진 고리형삼엽좌판의 합도 부장되며, 신라 기종인 청동유개장경호, 금, 금동제 고배, 금동제 대부완 등도 부장된다. 동시에 황남대총 북분에서 출토되는 일체형 병부를 가진 울두 등이 확인되기도 하는 등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Ⅲ기는 2단각 고배를 비롯한 고배들이 소형화되는 시기로 대각의 곡선화가 현저하게 관찰되며, 부가구연장경호가 출현하는 5세기 중엽에서 5세기 후엽에 해당된다. 전시기와 마찬가지로 최상위 무덤에 부장된 것과 같은 기종의 금속용기가 부장되지만 재질과 기종 조합에서 차이를 보인다. 식음기에 해당하는 금, 금동, 은 재질의 금속용기는 금관총에서만 관찰되며, 나머지 고분에서는 철제용기와 청동용기만 부장되는 모습을 보여서 신라 왕도에서는 금속용기 부장에서의 위계질서가 관찰된다. 금관총에서는 금, 금동, 은 재질의 여러 기종의 금속용기가 부장되며, 수량도 51점에 달한다. 청동유개장경사이호로 미루어 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고구려에서 수입된 금속용기 부장이 확인되며, 서역계 기물인 각배와 초호 등의 중국 중원왕조 기물이 부장된다. 다만, 금관총에서는 청동정이 부장되지 않고, 철술이 4점 복수부장되어서 다른 고분과 구별된다.

Ⅳ기는 5세기 말에서 6세기 전엽에 해당한다. 고배는 전체적으로 소형화되어서 전

체적으로 왜소해지고, 대각 하단에 돌대가 확인되며, 부가구연장경호의 구연부가 완전 반구화되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러한 토기가 부장된 고분으로는 천마총, 금령총, 서봉총이 있으며, 이 무덤들은 모두 최상위 무덤으로 비정되는데, 대형분에서는 II기의 고분에 부장되었던 청동정, 청동울두, 청동초호가 부장된다. 그렇지만 이보다 하위의 고분에서는 다양한 기종이 확인되지 않고, 공통적으로 부장되는 기종은 철술이다. 철술은 1점 혹은 2점이 부장되는 것으로 보아 철술 부장은 전 시기에 이어 지속된다. 한편 청동울두와 청동합은 선택적으로 부장되며, 금, 금동, 은 재질의 금속용기의 부장은 드물기도 하지만 부장된 양도 적다. 특히 IV기의 커다란 특징은 청동합이 IV기를 기점으로 수량과 재질이 다양해지기 시작한 점이다. 합은 종류로는 보주형뉴합, 십자뉴합, 조형뉴합이 확인되며, 이 중에는 신라에서 제작된 것으로 청동합이 현지화되었음을 시사한다. 철술의 부장도 계속되지만 2점 이상의 복수부장보다는 1점씩 단수부장되는 경향을 보인다. 전 시기 청동으로 제작되었던 정, 호 등도 철제로 제작되면서 철정, 철호이 새롭게 제작되며, 청동울두와 청동초두 등의 조합은 보이지 않는다.

분기	시기	금속용기	토기(1/12)
I	4C 후반	 정호로 7~13호분, 호로 14호분 1점	
II	4C말~5C초	 방사형 냄비	
	5C 전엽	 방사형 냄비	
III	5C 중엽	 방사형 냄비, 호로 1호분	
	5C 후엽	 1:금관총, 2:황오리 16호분 4점, 3:황오리남리, 4:황오리 16호분 2점, 5:목삼지구 83호분, 6:목삼지구 81호분	
IV	5C말~6C초	 1:천마총, 2:금령총, 3:서봉총, 4:서리총, 5:노서리13호분, 6:미추왕릉지구7호묘, 7:황오리37호분, 8:황오리 16호분 1점, 9: 황오동 34호분, 10:운양총, 11: 대구내당동55호분, 12:경산 조영 E2-1호분, 13:청성 고동 11호분, 14: 대구 달성 죽곡리고분	
	6C 전엽	 1:경산 조영 E2-3호분, 2:청성 고동 7호분, 3:교우총, 4:계림로14호분, 5:황오리 4호분, 6:보문리고분, 7:영산 금조총, 8:영산 부부총	

[도면 5] 금속용기의 전개양상(축척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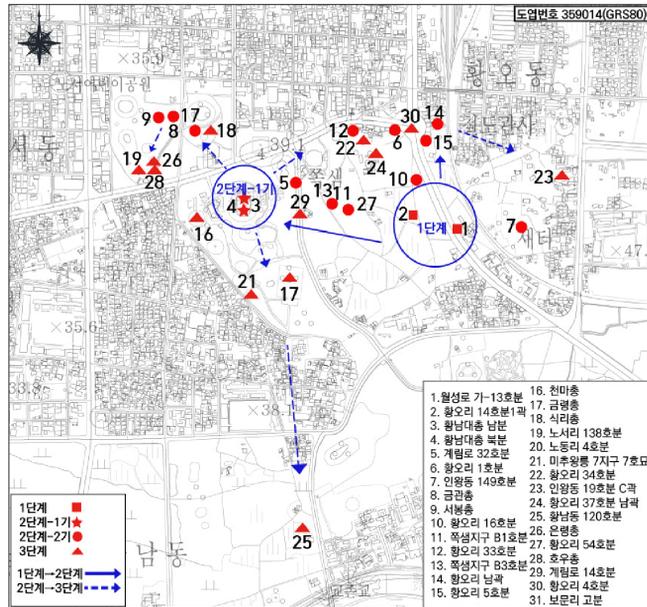
경주 이외 지역에서는 청동합과 청동울두, 철술 등이 확인되며, 청동합의 경우에는 보주형뉴, 십자형뉴의 형태가 부장되며, 십자형뉴의 합은 II기와 III기에는 은, 금 동, 청동으로 다양하게 제작된 것에 반해 IV기에서는 청동으로 제작되어 은령총과 경산 조영 EII-1호분에 부장되었다.

이처럼 IV기에서의 커다란 특징의 하나는 외래기종의 신라화이다. 청동정에서 변형된 현상이 두드러지며, 미추왕릉 7지구 7호묘의 정은 철로 제작되었으며, 동체에 돌출된 전이 있고 뚜껑을 기대의 대각을 의도적으로 파손하여 사용하는 등의 형태는 철술의 특징을 보여주지만 전체적인 기형을 통해 청동정을 모방하여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황오리 4호분의 청동정은 청동합에 다리와 귀를 부착하여 청동정의 특징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형태는 고구려나 중국에서 확인되지 않는 모습으로 청동정을 모티브로 하여 청동합과 청동정이 결합된 모습이다.

2. 금속용기의 시공적 양상

금속용기의 부장은 적석목곽분의 출현과 함께 등장한다. 하지만 출현기의 자료가 한정적이고 기종도 개인 식용기인 완과 취사용기인 철술이 확인되어 의례와 관련 있는 기종은 보이지 않는다. 이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의례와 관련이 있는 기종이 등장하며,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금속용기의 부장이 경주의 지역으로 확산된다.

금속용기가 가지는 시공적 양상에 대하여는 새로운 용기의 등장을 기준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금속용기가 가지는 시간과 공간적인 의미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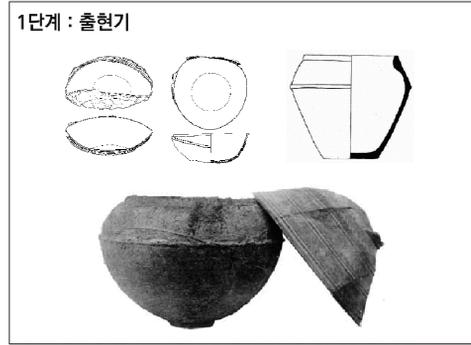
[도면 6] 경주 적석목곽분의 금속용기 부장의 확산과정(S=25,000)

금속용기의 시간적인 전개에 따라 4분기로 나눌 수 있지만, 시공적인 양상을 결부시켜 금속용기 부장의 확기는 3단계로 변화과정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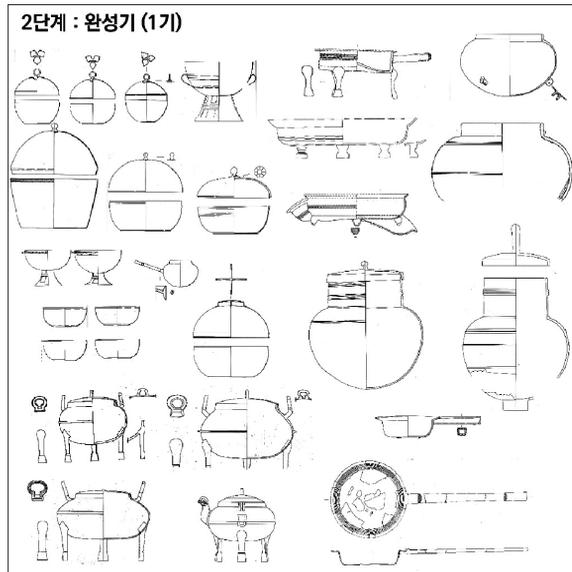
1단계는 금속용기의 출현기로 신라 고분에 금속용기가 처음 등장하는 시기이다. 처음으로 월성로 가-13호분에서 금제완 부장이 확인되는데 특히, 월성로 가-13호분은 적석목곽분의 출현기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월성로 가-13호분에서는 금속용기와 함께 유리기, 그리고 금동제 세환이식, 금동제 재갈멈치가 있는 재갈이 확인되기도 하여서 고구려와의 관련을 보

여주며 동시에 적석목곽분의 출현을 시사하는 고분이다. 이에 비해 황오리 14호분에서는 철술과 철호의 부장이 확인된다. 철술의 부장은 경주 사라리 130호분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어, 적석목곽분 조성 시기 이전부터 신라 사회에서 철술 부장은 재지적 의례와 전통적인 관념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월성로 고분군 내 위치한 월성로 가-13호분과 월성로 고분군과 지리적으로 가깝게 위치하는 황오리 14호분에서 금속용기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월성로 고분군 일대에서 금속용기 부장이 시작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2단계는 금속용기의 완성기로 금속용기 전개의 II, III기에 해당된다. 금속용기 재질별, 기종별 조합이 완성된 시기로 기종과 재질에서 다양성을 보여주며, 경주의 적석목곽분에서만 금속용기가 확인된다. 2단계의 1기는 대형 적석목곽분에서 금속용기 부장이 확인되며,



[도면 7] 1단계 출현기의 금속용기와 부장고분(축척부동)
(월성로 가-13호분, 황오리 14호분 1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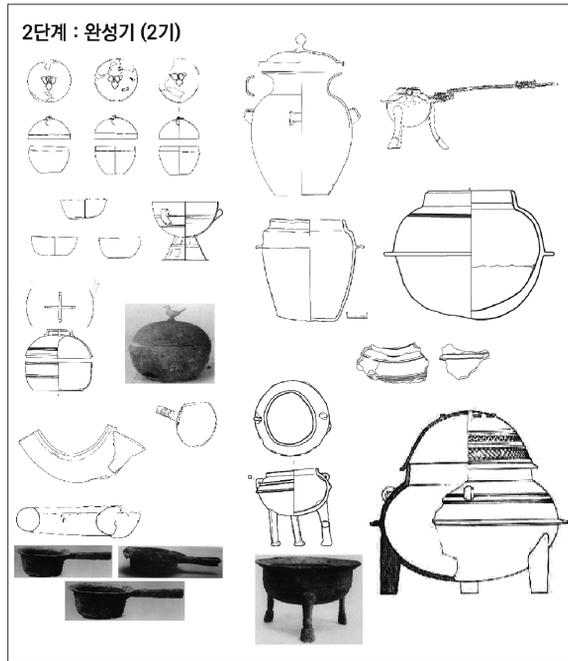


[도면 8] 2단계 완성기-1기의 금속용기와 부장고분(축척부동)
(황남대총 남분, 황남대총 북분)

황남대총이 해당한다. 이 시기에는 고구려와 중국계, 서역계 금속용기가 모두 망라되었으나 고구려 기종의 출현이 처음 이루어졌다. 특히, 신라 고분에서 출토된 청동정 9점 중 6점이 확인되며, 황남대총 부분에서는 고구려에서 출토된 형식인 청동정과 청동정의 형태에서 변형된 청동정이 함께 부장된다.

월성로 고분군에서 시작되었던 금속용기 부장이 대릉원 일대에 등장하는 시기로, 대형 적석목곽분인 황남대총에서 전 시기에 확인되는 금속용기의 기종이 조합을 이루어 부장되며 최상위의 고분에서 제한적, 독점적으로 금속용기 부장이 이루어진다.

2단계의 2기는 왕릉급의 무덤뿐만 아니라 상위계층의 중대형급의 무덤에서 금속용기 부장이 시작된다. 모든 기종의 금속용기의 부장은 금관총에서 확인되며, 금관총에서는 신라 기종을 비롯하여 고구려 토기와 형태가 같은 청동유개사 이장경호와 금동각배, 중국 남조의 청동초두 등 이전 시기에 확인되지 않았던 새로운 금속용기가 부장되었다. 이에 비해 중대형분은 부장된 금속용기의 기종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황오리 일대와 쪽샘지구 고분에 부장된 금속용기는 청동합, 청동울두, 철술 등으로 금속용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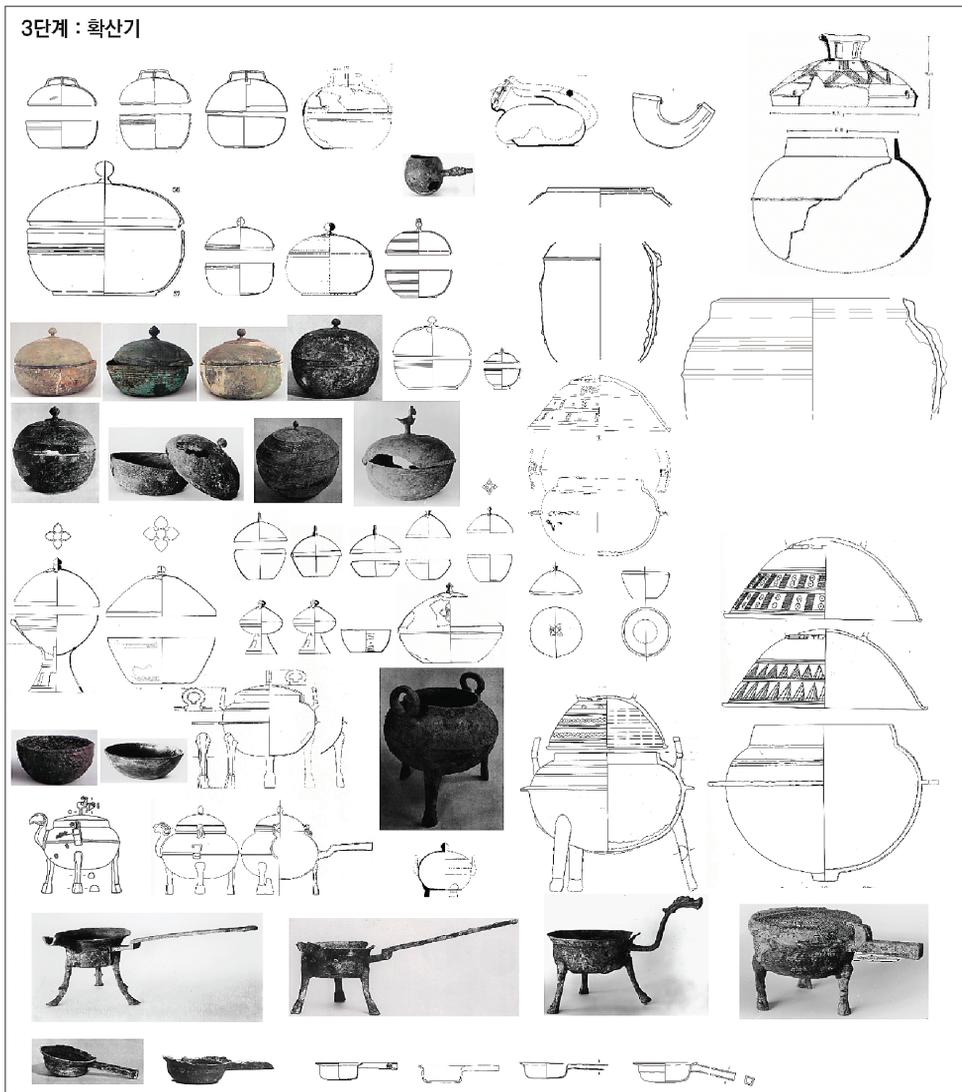
[도면 9] 2단계 완성기-2기의 금속용기와 부장고분(축척부동)

(계림로 32호분, 황오리 1호분, 금관총, 황오리 16호분 4곽, 황오리 16호분 8곽, 황오리 남곽, 황오리 16호분 2곽, 쪽샘지구 B3호분, 쪽샘지구 B1호분, 황오동 33호분(동), 황오리 5호분)

의 기종과 수량에서 최상위 대형분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2단계가 되면 대릉원 일대에 금속용기 부장이 시작된 후 노서리 고분군 일대와 황오리 고분군, 쪽샘지구까지 금속용기 부장의 공간적 범위가 확산되는 모습이 확인된다.

3단계는 금속용기 부장이 경주분지 내 뿐만 아니라 경주 이외 지역으로 확산된다. 경주 적석목곽분의 경우에도 천마총을 제외하고는 금, 은, 금동 식음기의 부장이 보이지 않으며, 새로운 기종의 금속용기는 출현하지 않는다. 또한 둘째 단계에 부장되었던

금속용기가 재질을 달리하면서 경주 분지 내에서 노동리와 노서리 고분군, 황오리 고분군, 인왕동 고분군과 시내지역을 벗어난 보문리 고분에서도 청동합의 부장이 확인된다. 특히 금속용기 부장 고분의 확산과 함께 외래기종 금속용기가 신라화되었는데, 청동정의 경우 칠성산 96호분에서 확인된 청동정의 형식과 가장 변형이 많이 이루어진 황오리 4호분의 청동정이 확인된다. 경주의 적석목곽분에서는 청동합, 청동울두, 철술 등이 지속적으로 부장되지만, 청동정이나 청동울두 등이 선택적으로 부장되기



[도면 10] 3단계 확산기의 금속용기와 부장고분(축척부동)

(천마총, 금령총, 서봉총, 식리총, 노서리 138호분, 황오동 33호분(서), 미추왕릉 7지구 7호묘, 황오리 37호분, 황오리 16호분 1곽, 황오동 34호분, 인왕동 19호분 C곽, 황남동 120-1호분, 은령총, 황오리 54호분, 호우총, 게림로 14호분, 황오리 4호분, 보문리 고분)

단계	금속용기								부장고분
	금은기	합	정	초두·초호	위두	호	기타용기	철솥	
1	출현기								함성로 가-13호분 함오리 14호분 1곽
2	완성기 (1기)								황남대총 남분 황남대총 북분
	완성기 (2기)								계림로 32호분 함오리 1호분 금관총 함오리 16호분 4곽 함오리 16호분 8곽 함오리 남곽 함오리 16호분 2곽 죽성지구 83호분 죽성지구 81호분 함오리 33호분(층) 함오리 5호분
3	확산기								진미총 금관총 서평총 석리총 느리리138호분 함오리 33호분(A) 미추왕릉7지구7호묘 함오리 37호분 함오리 16호분 1곽 함오리 34호분 인왕동 19호분 C곽 황남동 120-1호분 은평총 함오리 54호분 호우총 계림로 14호분 함오리 4호분 보문리고분 대구내당동55호분 경산 조영 E2-1호분 창성 고평 11호분 대구 앞성 죽리리고분 경산 조영 E2-3호분 창성 고평 7호분 양산 금주총 양산 부부총

[도면 11] 금속용기 부장의 획기(축척부등)

도 한다. 동시에 경주 이외 지역에서는 경산, 대구, 창녕, 양산의 고총고분에서만 금속용기가 부장되어서 신라 고분문화를 공유하는 낙동강 이동지역 가운데 이들 지역이 다른 고분보다 상대적으로 위계가 높았던 것으로 상정할 수 있다.

3. 금속용기의 고고학적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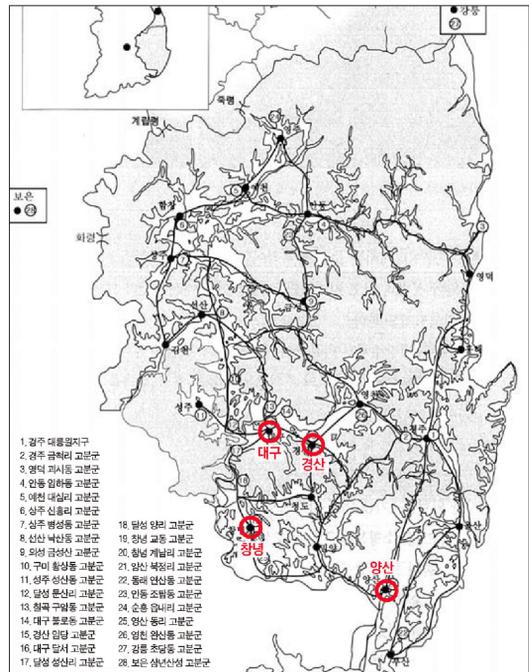
신라의 고대 왕권국가의 성립은 고총으로서 적석목곽분의 등장과 함께한 것으로 보고 있다. 4세기 무렵 경주 중심에서 고총고분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신라양식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신라양식의 토기나 신라식의 착장용 장신구, 삼환장식대도, 장식마구 등 신라양식이 완성된 것은 황남대총 남분에서 가시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황남대총에서 관찰되는 신라양식의 토기나 착장용 장신구, 장식대도와 장식마구의 조합을 통하여 신라의 영역을 추정할 수 있다. 실제 5세기 이후 낙동강 이동 각지에 조성된 고총고분에서 경주의 대형분과 유사한 양상이 관찰되어서 이

를 신라의 지방으로 보기도 한다. 그렇지만 신라의 지방 지배가 강력한 왕을 정점으로 한 일원화된 직접 지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어서, 직접 지배는 통일기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금속용기의 고분 부장도 신라의 중앙과 지방에 대한 관계를 설명해주는 물적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금속용기는 경주 중심지구의 최상위 적석목곽분에서 완성되기 시작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차츰 경주 분지의 중·대형 고분으로 확대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중·대형고분에 부장된 금속용기는 재질과 기종조합에서 최상위 무덤보다 낮은 위계를 보여준다. 때문에 금속용기의 부장에는 정치, 사회적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신라의 고분문화를 공유하는 경산, 대구, 창녕,¹⁾ 양산, 포항지역의 고분은 황구식 석곽분과 수혈식석곽분, 횡혈식석실분 등 적석목곽분이 아니지만, 경주 최상위 무덤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기종의 금속용기가 부장되었다. 다만, 경주에서 보이는 금속용기에 비해 재질이나 기종 조합에서 5세기 중엽 이후의 중·대형 적석목곽분과 같거나 낮은 위계를 보이며, 부장된 수량 또한 매우 적은 편이다. 그렇지만 신라의 세력권에 포함되는 낙동강 이동지역의 고총고분에서는 금속용기가 부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볼 때 금속용기가 부장된 경산, 대구, 창녕, 양산, 포항은 비교적 우위를 점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금속용기가 부장된 대구, 경산, 창녕, 양산 등지에서 볼 수 있듯이 신라 중앙에서 각지로 가는 교통의 요지에 위치한다. 창녕은 낙동강 이서로 나가는 길목에 위치하며, 양산은 경주에서 김해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다. 또한 대구와 경산은 교통의



[도면 12] 신라 고총의 분포와 금속용기 부장 고분 : ●
(중앙문화재연구원 2017 수정 후 인용)

1) 창녕양식토기가 신라토기의 한 지역양식이며 창녕지역의 고총에서 출토되는 금공품 또한 신라에서 생산되어 분여되었고 고총이 축조되는 단계에는 신라의 지방이었다는 견해(이희준 2017)에 따라 신라 고분으로 인식하였다.

결절지로의 지리적으로 특징을 가진다. 이처럼 금속용기는 신라 중앙과 교통의 요충지인 이 지역을 연결해주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즉 금속용기는 이들 지역 고총고분 피장자를 낙동강 이동의 다른 지역 고총과 차별시키는 위계의 물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금동관을 통해서도 검증이 가능하다. 피장자의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는 것은 금동 출자형관이다. 금동제 출자형관은 5세기 중반경부터 신라 세력권의 여러 지역의 고총에서 부장되며, 5세기 후반 무렵 출자형 금동관은 대구, 창녕, 양산에 금동관이 집중되는데, 금속용기 또한 이 지역의 고총고분에 부장된다. 이는 고구려와의 관계 악화 속에서 가야 세력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을 견제하기 위해 지방과의 관계를 도모하려는 신라의 정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라 사회에서 금속용기의 부장은 고구려와의 관련 속에서 정형화되는 등 고구려와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이 있을 것이며, 금속용기는 신라의 성장과 발전 과정 속에서 경주 외 지역으로 확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이 신라 고분에 부장된 금속용기가 가지는 정치·사회적 의미라고 할 수 있다.

[표 8] 경주 외 지역 금동관, 금속용기 부장 고분

지역	금동관 출토	금속용기 출토
의성 탑리 1곽	●	
부산 복천동 10·11호	●	
경산 임당 7A호	●	
부산 복천동 1호	●	
경산 임당 7C	●	
울산 조일리	●	
창녕 교동 7호	●	●
경산 임2호	●	
대구 달서 37호 1실	●	
양산 부부총	●	●
경산 임당 5B1	●	
경산 임당 6A	●	
양산 금조총	●	●
강릉 초당동 B16호	●	

V.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삼국 중 신라 고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금속용기의 부장에 초점을 두고 경주와 경주 이외 지역의 고총고분에 부장된 금속용기를 취합하여 신라 사회에서 금속용기 부장이 갖는 의미를 추적하고자 하였다.

신라 고분에 부장된 금속용기는 금, 은, 금동, 청동, 철제에 이르기까지 그 재질이 다양할 뿐 아니라 고배, 완, 소합 등 개인 식음기에서부터 술과 시루 등의 조리용기, 장경호 등 저장용기와 정과 초두, 초호 등의 의례용기에 이르기까지 기종 또한 다양하다. 이러한 금속용기의 부장은 현실의 생활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계세관념의 물질 표현인 동시에 매장 의례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매장 의례와 사후관념의 물질 표현으로서 금속용기는 신라 중심의 경주에 집중되는 한편 경주 이외의 일부 지역의 고총고분에 부장되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두 가지에 주목하여 분석하였다. 하나는 고분에 부장된 금속용기의 검토를 통하여 금속용기의 기종 조합을 살폈고, 이를 종합하여 금속용기 부장된 고분의 시간적 전개 양상과 함께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경주 이외 지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금속용기의 부장이 신라 중심의 대형분과 특정 지역의 고총고분에 부장된다는 점에서 논문에서는 금속용기의 부장에 반영된 신라의 정치, 사회적 의미를 살피고자 하였다. 그 결과 금속용기는 고분의 피장자의 위계를 파악할 수 있는 유물로 파악되었다.

한편, 금속용기의 부장은 사회적 의미를 갖기도 한다. 신라의 중앙에서는 최상위 무덤에서 다양한 재질과 기종의 금속용기가 복수부장되기 시작하면서 차츰 그보다 낮은 위계의 무덤으로 금속용기 부장이 확대되어 5세기 중~후엽이 되면 금속용기의 부장이 신라 중앙의 상위 신분에서 성행했음을 알 수 있다.

경주 이외 지역에서 금속용기의 부장은 5세기 말 이후가 되면서 확인되기 시작하며, 신라의 고분문화를 공유하는 여러 지역 중에 경산, 대구, 창녕, 양산, 포항에서만 금속용기가 부장되어서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로부터 금속용기의 부장이 다른 위세품들과 마찬가지로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시사하는 것으로, 금속용기가 부장된 고총이 있는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위상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투고일 2023. 12. 30 | 심사완료일 2024. 1. 16 | 게재확정일 2024. 2. 1

참고문헌

-國文-

- 강현숙, 2012, 「고구려고분과 신라적석목곽분 교차편년에서의 몇가지논의」, 『한국상고사학보』, 78.
- 경북대학교박물관, 2000, 『경북대학교박물관 유적발굴 40년』.
- 慶熙大學校博物館, 1974, 『慶州 仁旺洞 19·20號 古墳發掘 調查報告』, 慶熙大學校博物館 叢刊 第一冊.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1, 『慶州 金冠塚 發掘調查報告書 : 國譯』.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경주시, 2013, 『B1호 발굴조사 보고서』.
- _____, 2016, 『B지구 연접분 발굴조사 보고서』.
- 국립경주박물관, 1990, 『慶州市 月城路 古墳群 : 下水道工事に 따른 收拾發掘調查報告』.
- _____, 2010, 『慶州 鷄林路 14號墓』.
- _____, 2012, 『慶州 鷄林路 新羅墓1』.
- _____, 2020, 『경주 서봉총Ⅱ 재발굴보고』.
- 국립대구박물관, 2018, 『대구달성유적』Ⅳ.
- 國立博物館, 1948, 『壺衫塚과 銀鈴塚』, 乙酉文化史.
- _____, 1964, 『皇吾里4·5虎墳, 皇吾里破壤古墳 發掘調查報告』, 國立博物館 古蹟調查報告 第五冊.
- 국립중앙박물관, 2016a, 『慶州 金冠塚 : 遺構篇』.
- _____, 2016b, 『慶州 金冠塚 : 遺物篇』.
- _____, 2000a, 『경주 노동리 4호분』.
- _____, 2000b, 『범천리 I』.
- 김대환, 2017, 「신라 마립간기 왕릉의 새로운 성과와 해석」, 『한국고대사연구』, 제88집.
- 김용성, 2015, 『신라고분고고학의 탐색』, 진인진.
- 대구대학교박물관, 2002, 『달성죽곡리고분 발굴조사보고서』.
- 동아대학교박물관, 1991, 『양산금조총·부부총』.
-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74, 『天馬塚』.
- 文化財管理局 慶州史蹟管理事務所, 1975, 『慶州 仁旺洞 第149號 發掘調查報告』.
-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1985, 『皇南大塚北墳發掘調查報告書』.
- _____, 1994, 『皇南大塚南墳發掘調查報告書』.
- 서울대학교박물관, 2017, 『황오리 1호분 출토 유물 재발굴보고』.
-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20, 『경주 대릉원 일원(사적 제512호) 추정 120호분 주변 정밀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자료집』.
- 이희준, 2017, 『신라고고학연구』, 사회평론아카데미.
- 영남대학교박물관, 1975, 『皇南洞古墳發掘調查概報』.
- _____, 2015, 『경산임당지역고분군』XII.
- _____, 2017, 『경산임당지역고분군』Ⅳ.
- 중앙문화재연구원, 2017, 『신라고고학개론』下, 진인진.
- 秦弘燮, 1969, 「皇吾里第三號墳」, 『慶州皇吾里第一·三號墳·皇吾里第一五一號古墳發掘調查報告』.
- 최병현, 2021, 『신라 6부의 고분연구』, 사회평론아카데미.

-日文-

- 有光教一·藤井和夫, 2000, 『朝鮮古蹟研究會遺稿 I -慶州皇吾里第16號墳·慶州路西里215番地古墳發掘調査報告1932-1933』, 유네스코동아시아문화연구센터 財團法人東洋文庫.
- 朝鮮總督府, 1922, 『大正七年度古蹟調査報告』第一冊.
- _____, 1932, 『慶州金鈴塚飾履塚發掘調査報告』, 『大正十三年度古蹟調査報告』第一冊.
- _____, 1937, 『慶州皇南里第百九號墳皇吾里第十四號墳調査報告』, 『昭和九年度古蹟調査報告』1.

The Appearance and Development of Metal Container in Silla Ancient Tombs

Bang, Min-Hee (Researcher, Gyelim of Research Institute Cultural Heritag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ocus on the burial of metal containers, which is a feature of ancient tombs from the Silla Dynasty of the Three Kingdoms, to gather metal containers buried in ancient tombs and graves in and outside of Gyeongju to trace the meaning of burying metal containers with the dead in the Silla society.

Metal containers buried in the ancient tombs of Silla range in materials from gold to silver, gilt bronze, bronze, and steel, and also have diverse types such as personal plates for food called gobae, wan, sohap, etc., cooking containers such as sotga and siru, storage containers such as janggyeongho, and even containers used for rituals like jeong, chodu, and choho. Burial of such metal containers are materialistic expressions of burial customs and belief of the afterlife are concentrated in Gyeongju, which was the center of Silla, while being buried in ancient tombs in some other areas outside of Gyeongju. Therefore, this study conducted analysis focusing on two aspects. Metal containers buried in ancient tombs were reviewed to examine the types of metal containers, while on the other hand, results of this showed that in addition to the temporal development mode of ancient tombs in which metal containers were buried, this practice spread to areas outside of Gyeongju as time passed.

Based on this, the meaning of burying metal containers in tombs of the Silla

society was evaluated.

Meanwhile, the burial of metal containers also had social meaning. In the center of Silla, multiple metal containers with various materials and types were buried in the greatest tombs, and this custom of burying metal containers spread to the tombs of people of lower status. It is evident that in the fifth century and latter Silla Dynasty, the burial of metal containers was widely practiced among the upper echelons in central Silla.

Burial of metal containers outside of Gyeongju were found after the late 5th century, and among the various regions that shared the ancient tomb culture of Silla, metal containers were found only in the ancient tombs of Gyeongsan, Daegu, Changnyeong, and Yangsan, and therefore, it was judged that this could be interpreted 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Just like other artifacts that show hierarchy, the burial of metal containers can also hint to the relationship of the central and local regions, and it can be presumed that areas with ancient tombs that buried metal containers had higher status compared to other regions.

Key words : Silla Ancient Tombs, Gyeongju, Metal container, Hierarchy, Appearance, Development

